

영적 관계

알렉산드로스 한의종 신부

우리에게는 우리를 낳아주시고 양육해주시는 아버지가 계신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육적인 아버지 외에도 영적인 아버지가 계신다. 영적 아버지는 자녀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여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자녀가 부모에게서 태어나면 자라나면서 사회의 한 일원이 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면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갈 수 있는 은총을 받게 된다. 교회 생활을 시작하면, 세례를 받기 전까지 교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도를 받는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후에는 계속해서 영적 사제에게 고백성사를 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를 받는다.

우리는 바울로 사도의 예를 보면서 영적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진정한 삶을 찾아볼 수 있다. 바울로 사도는 고린토 교인들의 영적 아버지였다. 단순히 교사로서 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 그는 그들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그들의 가족들을 모두 구원의 길로 인도하였다. 그의 전도 열정은 영적 자녀들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불타올랐다. 그리고 영적 아버지로서의 사랑은 자녀들을 돌보는 강한 힘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복음뿐만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려고 했다.

“이렇게 여러분을 극진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느님의 복음을 나누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생각이었습니다. 우리는 그토록 여러분을 사랑했습니다.”(1데살로니카 2,8)

또한 그는 그리스도를 그들 마음에 심어 주려고 고통과 투쟁하였다.

“나의 자녀인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나는 또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겠습니다.”(갈라디아 4,19)

영적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신중해야 한다. 그리고 한번 결정되면 영적 아버지를 자주 바꾸어서는 안 된다. 자신의 입맛대로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치 육신의 아버지를 마음에 안 든다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은 영적으로 혼란을 갖게 되어 바른 신앙의 길로 나아가기가 힘들게 된다.

영적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인간적인 유대관계가 아닌 영적 사랑으로 엮어진다. 자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는 영적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을 자녀들은 신뢰로써 따라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을 온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여러분의 지도자들을 따르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쉬지 않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보아 주고 있습니다.”(히브리 13,17)

하늘나라로 가신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은 우리의 영적 아버지로서 사도 바울로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돌보셨다.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인간적인 정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라 영적 사랑으로 맺어졌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해나가는 것뿐이다. 그분의 사랑을 알고 느끼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다. 대주교님의 유지를 잘 받들어 온전히 교회 생활을 하며 구원의 길로 가야 한다.

40일 성찬예배가 종료됩니다.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영혼의 안식을 위한 40일 성찬예배가 전주 성모 안식 성당에 이어, 7,11~7,19에는 구세주 변모 수도원에서 마지막으로 거행합니다. 이로써 40일간 여러 성당에서 순차적으로 거행되었던 성찬예배가 종료됩니다.

구세주 변모 수도원 블로그에는 고인의 행적이 담긴 사진을 정리하여 연재합니다. 많이 방문하시어 고인을 추억하고 영적 교감을 이루시기를 권합니다.

<https://orthodoxmonasterykorea.org/> 또는 '구세주 변모 수도원'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영원히 기억되시리이다."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묘소. 고인을 기리는 등불이 24시간 계속 켜져있다.

두 손을 들어 강복(降福)해 주셨다

아타나시아 봉사자

루가 복음사도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던 날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두 손을 들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강복해 주시고, 사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강복하시면서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루가 24,50~51).

우리들과 함께 사셨던 예수님은 삶 전체가 축복이고 강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의 강복으로서 죽으셨으며, 강복으로서 무덤 안에 누우셨고, 강복으로서 부활하셨으며, 강복으로서 따르던 제자들에게서 떠나가셨습니다.

거의 모든 이콘에서 예수님은 당신의 손을 들어서 강복하시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사제가 '모든 이에게 평화'라고 말할 때, 그가 모방하고 또 회중에게 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강복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가장 큰 복으로 풍요롭게 만드시고자 하십니다. 곧, 용서의 약속과 평화 그리고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그분의 복을 받으려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열망으로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다."(성 어거스틴. 4-5세기 서방의 교부)

소 식

대교구

■ 40일 추모 예배

7월 23일 토요일에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의 40일 추도예배가 거행됩니다. 장례식은 고인의 유언에 따라 교회 내부적으로 진행되었지만, 이번 추도예배는 모든 이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진행됩니다. 모두 오셔서 고인을 함께 추모하고 기억하고 영혼의 안식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교계와 정계 및 사회 각층에서도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여러 인사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오전 10시에 성찬예배가 시작되고 이어서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이후에는 오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참석 여부를 각 성당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인원 파악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여름 수련회

3년 만에 재개하는 여름 수련회에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수련회는 우리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정교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세례신자, 예비신자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널리 알려져 우리의 보물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선교의 기회로 만드는 데 동참합시다. 특히, 초중등부 기간에는 영어 프로그램도 계획되어 있으니, 학생 여러분들은 주변 친구들과 같이 오면 좋을 것입니다. 신청은 각 성당 사무실에서 오는 15일까지 받습니다. 더불어, 주방에서 봉사를 해주실 분들도 각 성당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장소: 춘천 성 보리스 성당 사회복지관

일정: 7/25(월)-29(금): 초등부, 중등부 (참가비 12만원)

7/29(금)-8/1(월): 고등부, 신데즈모스 (참가비 9만원)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 장년회 춘천 성당 봉사활동

서울 성당 장년회는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7월 15일(금)부터 16일(토)까지 춘천 성 보리스 성당으로 봉사활동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복지관 청소와 마당 정리, 주변 시설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하고 아름다운 수련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니, 장년회뿐만 아니라 청년회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데즈모스” 대면 모임

청년회 “신데즈모스”는 코로나19로 인해 약 2년간 온라인 비대면 모임을 진행한 끝에, 5월 말부터 대면 모임을 재개하여 매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주일 성찬예배 후에 세례신자, 예비신자 모두 모여 신앙생활과 교회의 전례와 영성에 대해 배우며, 영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 사는 신자들도 참석할 수 있도록 대면 모임을 Zoom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서울 성당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